

TOURISM SCOPE

E-book

Volume 25
2013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11개국 71개 도시 정부와 36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CULTURE & TRAVEL**
경주에서 만난 신라의 품
Sleeping Royal Family
- 06 SPECIAL**
발견, 타이완의 타이난
New Discovery Tainan in Taiwan
- 12 CITY THEME TOUR**
말라카 세계문화유산 도보 여행
Heritage Walking Tour in Melaka
- 16 CITY THEME TOUR**
키워드로 떠나는 부산 여행
Busan's Hidden Secret
- 20 TREND & ANALYSIS**
자연과 함께하는 다섯 가지 에코힐링
ECO HEALING
- 22 FESTIVAL CALENDAR**
- 25 TPO NEWS**
- 26 TPO INTERVIEW**
추첸(Chu Chen) 타이완 가오슝시 시장



**18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3-12 October, 2013**

Welcome to
the Hub of Asian Cinema

아시아 영화의 허브, 부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ARTISTRY
ARTISTRY





Dynamic
BUSAN



경주에서 만난 신라의 품

왕가의 휴식

과거 신라의 찬란한 영광을 간직한 한국의 역사 도시, 경주. 한 시대를 풍미한 신라의 왕가는 경주 곳곳에 묵묵히 잠들어 있었다. 둥그스름한 봉분의 왕릉 속에서 영원히 잠든 그들과 고요한 휴식 시간을 보냈다.

경주와 신라, 그리고 왕릉

경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역사 도시다. 천년의 역사를 이룬 신라시대의 수도로 국보, 사적, 보물 등 수천 점에 이르는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 많은 유적 중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등 소문난 문화재도 좋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왕릉이다. 산과 평야가 어우러진 도시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소박한 휴식의 운치로 간직할 줄 아는 곳이었다. 시내 중심의 대릉원과 소나무 숲 한복판의 선덕여왕릉, 그리고 평야와 어울린 진평왕릉까지! 옛 선조들의 능이 자리하고, 그 주위로 들판과 평야가 이어진다. 산들이 높지 않으며, 건물도 대개 5층 이하라 시야가 막힘없다. 경주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높은 고분 봉황대보다 낮게 지어야 한다는 건축법이 적용된다. 참 다행이다. 낮은 산과 넓은 평야, 그리고 둥그스름한 능들이 작은 굴곡을 이뤘고, 자연에 방해가 될까 몸을 사린 건물들이 적당히 이정표 구실을 했다. 능과 능 사이를 산책하는 사람들, 산을 타고 내려와 잠시 숨을 돌리는 아저씨, 논길 한쪽에서 배를 깔고 낮잠을 자는 고양이. 왕가의 휴식이 꽤 괜찮은 리듬을 선사한다.

The Royal Tomb

01 삼쌍둥이 산책로 삼릉

남산을 오르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능이다. 세 개의 능이 나란히 누워 있어 삼릉이라 부른다. 능 주위로 크고 작은 소나무가 숲을 이루며 봄이면 진달래가 만개한다. 8대 아달라왕, 53대 신덕왕, 54대 경명왕의 무덤이라 전해지고 있지만, 아달라왕과 신덕왕 사이에는 무려 700여 년이란 세월이 있어 능의 주인을 다르게 추측하는 사람도 많다. 경주시 배동에 위치해 배동삼릉이라고도 한다. 무엇보다 크기가 비슷한 세 능이 만들어내는 조화의 미가 돋보이는 문화재다. 사적 제219호로 보존되고 있다.

주소 경주시 배동 73-1

02 솔숲 안의 봉분 선덕여왕릉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주의 많은 능은 보존을 위해 다소 인위적인 공간 속에 놓여 있다. 대로에 난 작은 길 끝에 소나무로 병풍을 두르고 각종 조각상이 호위병 역할을 하고 있다. 나무, 길, 수풀 등 모든 것이 능을 위해 비껴나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선덕여왕릉은 숨어 있다. 높지 않은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걷다보면 아담한 솔숲이 나오고 그 속에 능이 있다. 역사적·문화적 가치는 다른 능에 비해 떨어진다고 하지만 선덕여왕릉이 자아내는 여유와 고요, 그리고 한적함은 다른 어떤 능보다 좋다. 능까지 가는 길도 호젓하고 예뻐 산책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한다. 땀내거나 자만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려 잠든 모습이 무엇보다 매력적인 능이다. 주소 경주시 보문동 산79-2

03 동화속 달빛 동산 봉황대

〈어린 왕자〉속 동산이 아닐까 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진 노동동 고분군의 봉황대는 꽤 로맨틱한 장소였다. 누군가의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봉긋하게 솟은 봉분이 너무도 아름다웠다. 경주 내 고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고분 위에 고목 6그루가 자라고 있다. 시내 중심이라 주변에 카페, 음식점들이 모여 있으며, 매주 금요일에는 이 봉황대를 무대로 음악회도 열린다. 여름밤 산책 장소로는 모자랄 데 없다. 길 하나 바로 옆의 대릉원, 1921년 신라 고분 가운데 처음으로 금관이 나왔다는 금관총, 그리고 금동제 신발이 나왔다는 식리총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분도 많지만, 봉황대가 그려내는 동화 같은 그림은 단연 여행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사적 제38호다. 주소 경주시 노동동 261



04 통일신라 문화의 정수 쾌릉

경주 내 대부분의 왕릉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평범한 집터가 되었다. 봉분은 깎였고, 그 위에 집들이 들어섰다. 나무, 수풀도 무성하게 자랐다. 1920년대 정부가 나서서 고분을 정비하기까지 경주 내 왕릉들은 그렇게 숨어 있었다. 왕릉이 무덤의 모습을 되찾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고작 80여 년 전이다. 그중 쾌릉은 통일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덤이다. 능 주위로 소나무가 작은 숲을 이루고 있으며 무인상과 사자상 등 석상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 쾌릉이란 '걸어놓은 능'이란 뜻인데, 이는 관을 묻을 때 지반에서 물이 나와 돌기둥을 받치고 시신을 모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봉분 주변에는 십이지상이 새겨진 돌레돌이 울타리를 이루고 있다. 38대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능이다.

주소 경주시 외동읍 쾌릉리 산17

05 신라의 미학 진평왕릉

경주의 능을 돌며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다가온 곳은 선덕여왕릉과 진평왕릉이다. 이 두 부녀의 능은 금관총, 식리총, 쾌릉, 성덕왕릉 등에 비해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예는 적지만 주변의 자연과 어울린 모습이 빼어나게 아름답다. 선덕여왕릉이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면 진평왕릉은 평야에 드러나 있다. 논,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누웠으며, 주위의 나무와도 어우러져 있다. 능 위로는 개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폈다. 바람이 불면 하얗게 일렁인다.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휴일 나들이 장소로 좋으며,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산책 나온 시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무덤 둘레에 자연석을 이용해 울타리를 돌렸다고 전해지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작가 유홍준이 가장 좋아하는 능으로 꼽은 곳이기도 하다. 주소 경주시 보문동 608



발견, 타이완의 타이난

오래된 미래

타이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타이난(Tainan, 臺南). 타이난은 아주 먼 과거를 간직했다. 옛 노래만큼 정겨웠고, 꾸밈없이 소탈했다. 그럼에도 도시는 늙지 않았다. 건물은 낡았지만 나름의 감각을 유지했고, 생기 있는 자연은 고스란히 지켜졌다. 오래된 것이 좋은 이유. 타이난의 미래는 여전히 수수하다.





아주 오래된 도시와의 조우, 타이난

무조건 딱딱딱딱 새로 짓는 건물 투성이인 도시들이 있다.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게 더 높고 고급스럽게, 세련되고 번쩍이는 건물을 경쟁적으로 지어낸다. 이런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가속화됐다. 그러는 사이 도시들은 서로 비슷해져갔다. 여행자는 그런 상황이 별로 달갑지 않다.

먼 타국까지 날아왔건만, 길보기에 다른 도시와 별다른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타이완도 똑같다. 커다란 빌딩들이 딱딱딱 붙어 있는 대도시 대신 타이완만의 온전한 향기를 풍겨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다. 그런 갈증으로 아쉬울 때, 타이완의 가장 오래된 도시 타이난(Tainan, 臺南)을 만났다.

큼지막한 간판들이 도로 옆 하늘을 메운 시내. 주변을 둘러봐도 고층 건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타이베이(Taipei, 臺北), 타이중(Taichung, 臺中), 가오슝(Kaohsiung, 高雄)과 함께 타이완에서 제법 큰 도시에 속하지만 사람들은 타이난을 '시골'이라 말했다. 골목 어귀마다 자리한 사원은 물론 집과 상점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도 100년 넘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 타이베이로 옮겨가기 전까지 타이난이 타이완의 수도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타이난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다. 예술가의 감각적인 실력이 돋보이는 벽화와 화랑, 카페와 퍼브, 소규모 호텔 등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타이난의 역사는 평탄하지 않았다. 수세기 전, 타이완을 발견한 중국인들에 의해 건설됐고, 17세기 타이난을 찾아온 네덜란드와 그 네덜란드를 쫓아낸 명나라를 거쳐, 19세기말 제국주의 시대 일본 식민지까지, 여러 나라가 머물고 떠났다. 곳곳에 그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애간함은 느껴지지 않는다. 타이난은 참 밝다. 오래된 도시가 지닌 여유와 정이 이런 것일까. 아직까지 타이난을 여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다수가 타이베이를 찍고, 지우펀(Jiufun, 九份)을 거쳐, 화련(Hualian, 花蓮)으로 향하는 일정이다. 하지만 타이난이 끌린다면, 과감하게 남쪽으로 내려가자! 타이난을 가보지 않고서는 타이완에 대해 단언할 수 없다. 타이난은 생각보다 흥미진진한 여행지다.

01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신농(神農) 벽화 거리. 02 신농거리에서 마주한 범상치 않은 잡화점. 알고 보니 평범한 물건을 파는 동시에 점괘를 풀어주는 점집이었다. 03 안평지구에 자리한 천후궁(天后宮) 입구에는 각자의 소원을 적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었다. 04 사전무묘(祀典武廟)에서 진심을 다해 신에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05 이른 아침, 아버지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신농거리를 달리는 뚱뚱뚱한 아이의 표정.

Temple for Love

타이난 월로 투어 月老 Tour

'천묘(千廟)의 성'이란 별칭을 가진 타이난. 1000개의 사원이 있다는 뜻인데, 타이난에는 그 정도로 사원이 많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사랑을 위한 타이난의 큐피드가 사원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 인연관을 지닌 '애정의 신'이 운명의 빨간 실을 찾도록 도와준다. 당나라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월하(月老)노인에게 기도하면 그가 달빛 아래서 빨간 실로 사람들의 연분을 맺어준다는 이야기다. 단, 자신의 상황과 꼭 맞는 월하노인을 만날수록 사랑의 가능성이 배가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위기의 부부에게 사전묘묘 祀典武廟

대천후궁 바로 인근에 자리해 삼국시대 촉나라 장군 관우(關羽)의 신명(神明)을 기린다. 과거에는 황제와 고관들만을 위한 사전묘(祀典廟)였다고 해 지금의 이름이 지어졌다. 사원 안쪽에 자리 잡은 월하노인은 주신의 정기를 받아 상대에게 다른 이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의 고리를 끊어주어 오랫동안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결혼한 부부 또는 교제 상대가 있는 사람들도 효험을 볼 수 있다고.

주소 台南市永福路2段229 전화 886-6-229-4401 운영시간 05:00~21:00



짝사랑이 힘들 때 대천후궁 大天后宮

타이완 최초로 '천후(天后)'라 명명한 해신 마조(媽祖)의 사원. 그 후전에 복덕정신(福德正神), 토지공(土地公)과 나란히 월하노인을 모신다. 사원에 가면 각종 웨딩 케이크와 과일 등이 수북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인연을 찾은 소원 성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그만큼 대천후궁 월하노인의 영험함이 뛰어나다는 말썬! 특히 마음에 둔 상대가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다. 한켠에는 복을 받는 차를 의미하는 '평안차(平安茶)'가 마련돼 있다.

주소 台南市永福路2段227巷18 전화 886-6-221-1178 운영시간 06:00~21:00 홈페이지 www.tainanmazu.org.tw

불화 전문 해결사 중경사 重慶寺

다른 사원들에 비해 규모가 무척 작다. 주신은 관음(觀音). 사원 내 월하노인은 한마디로 불화 전문 해결사다. 애인이나 부부 간에 불화가 생겼거나 제3자로 인한 외도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법력이 영험하다고. 그 해결 속도가 빨라 '속보사(速報司)'라 불리기도 한다. 산돌을 돌리며 월하노인에게 기도하는 '작간(醋研)'을 거행한 후, 다시 신상 앞에 놓인 초의 촛농을 이마에 바르면 화목을 되찾아준다.

주소 台南市中正路5巷2 전화 886-6-223-2628 운영시간 4~9월 07:30~18:30, 10~3월 07:30~18:00

외로운 솔로를 위해 대관음정 大觀音亭

17세기 타이난 최초로 자비를 덕으로 믿는 관음(觀音)을 모신 사원이다. 주신인 관음 옆에 미혼남녀의 연분을 관장하는 월하노인을 모시는데, 큰 입을 지닌 달변가로 허리춤에 '백년해로(百年偕老)' '이성합혼(二姓合婚)'이라고 쓰인 띠를 맸다. 좋아하는 상대가 없는 외로운 솔로들이 기도를 올린 뒤, 월하노인이 두른 홍색천의 실을 뽑아 간직하면 인연을 찾아준다는 전설. 타율이 가장 높은 신으로 인기가 좋다.

주소 台南市成功路86 전화 886-6-228-6720 운영시간 07:00~21:00 홈페이지 www.da-shing.org.tw



Time Machine Into The Past *

안평지구 Anping District 安平地區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안평지구는 타이난 여행자들이 드르는 필수 스폿 중 하나다. 과거 네덜란드인의 흔적을 살필 수 있는 안평고보를 비롯해 상상 이상의 트리하우스와 안평을 보호하는 천후궁, 맛집이 즐비한 옛날 거리까지, 모두 가까운 거리에 있어 쉽게 둘러볼 수 있다.



행복한 만물상 안평 옛날 거리

Anping Old Street 安平老街

엔핑거리(Yanping Street, 延平街)는 안평지구의 라오지에(老街), 즉 옛날 거리라 불린다. 300여 년 전 네덜란드인이 안평에 처음 건설한 길로 대만 제1거리로 불리기도 한다. 미로처럼 난 좁은 골목 사이로 다양한 상점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여행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다름 아닌 타이난식 먹거리! 새우과자, 오리알찜, 오징어구이, 잉어빵, 말린 꽃감 등 군침이 도는 간식이 즐줄이 유혹한다. 유년을 떠올리게 하는 소소한 장터 게임이 벌어지고 길거리 연주가 울려 퍼져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엔핑거리는 안평고보와 천후궁 바로 뒤편에 자리한다.



안녕과 평화 안평 천후궁 安平天后宮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인 천후(天后)를 모시는 사원. 1668년 건설돼 3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안평지구 사람들의 안녕과 평화를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 각종 문재, 위험, 질병, 불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천후와 함께 재물, 자식, 장수를 기리는 3명의 신을 만날 수 있다. 제법 큰 규모로 많은 사람이 찾아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린다. 입구에는 사람들의 바람을 적어놓은 나뭇조각이 걸려 있어, 타이난 사람들의 작은 소망을 엿볼 수 있다.

주소 台南市安平區國勝路33號 전화 886-6-223-8695 홈페이지 www.anping-matsu.org.tw

기묘한 이야기 안평 트리하우스

Anping Tree House 安平樹屋

사방으로 뻗은 거대한 나무줄기에 어안이 병병해진다. 정체는 우송(榕樹), 또는 반얀(Banyan)이라 부르는 나무. 이곳은 1898년 청나라 때 사람들이 무역을 위해 창고로 썼던 공간이다. 이어 영국, 일본 등이 창고로 사용하다가 타이완 정부가 들어선 후 버려진 채 방치됐다. 그때부터 나무가 저 홀로 자라 남은 벽을 타고 지붕을 뒤덮으며 지금의 모습이 된 것. 트리하우스 안에는 오직 나무와 텅 빈 공간뿐이다. 하지만 뒤영킨 나무줄기 사이로 햇빛이 새어 나오는 기묘한 분위기가 독특해 꽤 많은 사람이 찾는다. 그밖에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의 생활상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 있다.

주소 台南市安平區國勝路108號 전화 886-6-391-3901 운영시간 08:30~17:30 입장료 성인 50뉴타이완달러, 학생 25뉴타이완달러



네덜란드의 역사 안평고보 Anping Old Fort 安平古堡

1627년 네덜란드가 타이완을 점령할 당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벽돌로 지은 요새다. 본래 타이완 원주민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사용하던 장소. 그 후 명나라 정성공(鄭成功)이 네덜란드인을 몰아내면서 행정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곳곳에 대포, 탱크, 폭탄, 사형장, 감옥의 흔적이 남아 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안평지구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박물관에 들어서면 네덜란드와 정성공 간의 전투 이야기를 비롯해 당시 시대상을 볼 수 있는 무기, 그림, 모형도 등이 전시돼 있다. 해질 녘에는 망루에 앉아 노을을 감상해보자.

주소 台南市安平區國勝路82號 전화 886-6-226-7348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50뉴타이완달러, 학생 25뉴타이완달러



Meet The Nature



타이난 생태 여행

타이난의 자연은 거창하거나 대단하지 않다. 하지만 과감히 생략하고 지나치기엔 분명 섭섭할 만한 곳들! 하루 동안 여유를 두고 천천히 둘러보자. 아침에는 녹색 터널을 이룬 맹그로브숲을 만나고, 낮에는 멀리 습지에서 부리를 바삐 짓는 저어새를 관찰하며, 해질 무렵에는 염전의 붉은 노을에 빠져보자. 제법 알찬 타이난식 에코투어가 완성된다.



환상의 소금 노을 정자각와반염전

Jingzaijiao Tile-paved Salt Fields 井仔腳瓦盤鹽田

타이난에서 가장 오래된 염전. 과거 염전 바닥에 타일을 깔아 태양열을 잘 흡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천일염을 생산했다. 하지만 타이완 소금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금은 남서부 해안 지역의 관광 염전으로 남아 있다. 방문객은 옛날 방법대로 직접 고무래를 밀며 소금을 수확하는 체험도 할 수 있고, 1년 365일 생일에 따라 색깔이 다른 365개 소금 기념품이 명물이다. 하지만 이곳을 찾는 이유는 따로 있다. 환상적인 해넘이가 바로 그 주인공! 붉게 물든 노을이 염전의 새하얀 소금에 반사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한다. 날씨가 맑을수록 더욱 선명한 색감을 자아낸다. 염전 옆 해안가에는 사람들이 일렬로 앉아 제비갈매기 떼를 기다린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타이완을 찾는데, 떼를 지어 바다 위를 나는 모습이 장관이다.

찾아가는 법 타이난 기차역에서 지알리(Jiali)선 싱난(Xingnan) 버스를 타고 베이먼(Beimen)역에서 하차 주소 台南市北門區永華里井仔腳 전화 886-6-786-1629



저어새, 날아가다

흑면비로 생태 전시관 黑面琵鷺生態展示館

흑면비로(黑面琵鷺)의 우리말 이름은 '저어새'다. 영문명은 블랙 페이스드 스푼빌(Black-faced Spoonbill). 먹이를 찾을 때, 노 젓듯이 부리를 짓는 모습에서 유래했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 마리만 남아 있는 멸종 위기 새로 한국에서는 휴전선과 한강 부근에서 주로 서식한다. 그 무리가 추석을 지나 추운 겨울이 되면 베트남, 일본, 홍콩과 더불어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는 타이난으로 날아온다.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 타이난을 방문하는 저어새는 약 200마리. 저어새 서식지 부근에 자리한 흑면비로 생태 전시관에서는 저어새에 대해 알리고,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부리가 길면 수컷, 짧으면 암컷으로 구별하며, 색깔이 진하고 주름이 많을수록 나이를 많이 먹은 새다. 수명은 약 15년. 해안가나 습지, 강에서 사는데 수영은 못하고 물 위를 걷기만 한다. 전시관에서 99번 대강선(台江線)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가면 망원경을 통해 저어새를 관찰할 수 있는 관측소가 있다. 드넓은 습지에서 부리 저으며 먹이를 찾는 저어새 무리를 보노라면 자연의 신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주소 台南市七股區十份里海埔47號 전화 886-6-788-0642 운영시간 09:00~17:00(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홈페이지 <http://cec.tesri.gov.tw/blackfaced>



낭만의 숲 홍수림 녹색 터널 紅樹林 綠色隧道

머리 위로 우거진 나무가 고요한 터널을 이룬다. 숲을 이루는 정체는 홍수림(紅樹林)으로 곧 맹그로브(Mangrove)라 부르는 태생식물. 열대와 아열대 지방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갯벌, 하구에서 자라 뿌리로 숨을 쉰다. 타이완에서 지정한 보호수종의 하나로 가이드와 함께 작은 보트를 타고 30분간 홍수림을 관찰한다. 과거에는 선박들이 세금을 내고 무역을 하던 곳이었다고.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달린 채로 썩이 터서 물속으로 줄기를 길게 늘어뜨리며 자라 독특한 경관을 자랑한다. 숲의 크기는 작은 편이지만, 맑은 느낌의 녹색터널이 꽤 낭만적이다. 옆에는 명나라 장군 정성공(鄭成功)의 부대와

네덜란드가 전쟁을 벌인 당시 희생된 영혼을 기리는 사초대중사원(四草大眾廟)이 있다.

주소 台南市安南區四草里大眾路360號 전화 886-6-284-1610 운영시간 08:00~16:30 가격 성인 150뉴타이완달러

Enjoy Local Taste

*

타이난 맛 대 맛!

타이완에서도 맛으로 소문난 타이난의 요리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수박을 넣은 맑은 생선탕부터 새우와 파인애플로 만든 달달한 디저트까지 널설지만 맛있는 음식이 줄을 잇는다. 미식 여행의 관전 포인트는 간판마다 적혀 있는 설립 연도! 거루트 역사를 뽐내는 타이난의 맛 대 맛을 탐험해보자.



야식의 천국 화원 야시장

Flower Night Market 花園夜市

타이난에서는 야시장이 매일 한 곳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요일에 따라 각기 다른 곳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는데, 화원 야시장은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수많은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만큼 엄청난 인파를 자랑해 발 디딜 틈이 없다. 저녁 6시가 넘

은 시각, 형형색색 깃발이 휘날리며 야시장이 활기를 띤다. 야시장은 크게 식품, 상품, 오락 코너로 나뉘는데, 노점 몇 개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의류, 신발, 액세서리, 문구류, 애완용품 등은 기본. 한참 쇼핑을 즐기다 보면, 마작, 다트, 새우잡기 등의 게임이 눈에 들어온다. 야시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야식! 늦은 밤, 우리 입맛을 돋우는 다양한 야식이 대기 중이다. 간장을 발라 매콤하게 구워 먹는 옥수수, 토란을 넣은 붕어빵, 달콤한 설탕 소스를 발라 먹는 딸기꼬치를 비롯해 귀뚜라미구이, 참새구이같이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먹을 수 있는 희귀 음식도 있다. 식빵 안쪽에 수프를 넣고 다시 식빵으로 뚜껑을 닫은 모양이 마치 ‘관(棺)’과 비슷하다고 해 부르는 관차이반(棺材飯)은 타이난에 왔다면 꼭 먹어야 할 필수 메뉴다.

위치 해안로3단(海安路三段, Haian Road)과 화위로3단(和緯路三段, Hwei Road) 교차 지점



싱싱한 바다 향 염향 鹽鄉

바다에서 직접 잡은 해산물로 싱싱한 요리를 대접한다. 굴로 시원하게 우려낸 국물에 소면을 삶아 먹는 담백한 국수 자오파이커짜이멘센(招牌蚵仔麵線)이 으뜸. 시과멘센위탕(西瓜綿鮮魚湯)은 맑은 생선탕인데, 수박을 소금에 절여 짭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정자각와반염전 부근에 자리해 염전 체험이 포함된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한다.

주소 台南市北門區永華里井仔腳57號 전화 886-6-786-2643 운영시간 11:00~20:00 가격 자오파이커 짜이멘센 100뉴타이완달러부터, 시과멘센위탕 200뉴타이완달러부터 홈페이지 www.salthouse.net



이름난 국수 도소월 Du Hsiao Yueh 度小月

1895년 문을 연 도소월은 ‘단짜이멘(擔仔麵)’이란 면 요리로 유명하다. 면 요리가 다양한 타이완에서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은 맛집 중 맛집이다. 단짜이멘은 돼지고기를 갈아 양념한 뒤, 어묵과 달걀을 넣고 끓인 국수로 약간 느끼할 수도 있다. 조금 허전하다면, 양념한 돼지고기를 밥에 올려 간단하게 비벼 먹는 주유반판(豬油拌飯)으로 든든하게 먹는다.

주소 台南市中正路101號 전화 886-6-220-0858 운영시간 11:05~22:30 가격 단짜이멘 50뉴타이완달러, 주유반판 30뉴타이완달러 홈페이지 www.iddi.com.tw

바삭바삭한 굴튀김 구고 가지전 蚵家蚵仔煎

타이완은 굴요리가 유명하다. 하지만 대개 날것으로 먹지 않아 굴도 튀기거나 삶는다. 구고 가지전은 1961년 안평지구에 자리 잡았다. 굴과 야채를 밀가루에 버무리 부친 커짜이첸(蚵仔煎), 굴을 기름에 튀긴 커짜이수(蚵仔酥)가 별미. 우리나라 어묵처럼 해산물을 으갠 후 밀가루를 입혀 동그렇게 삶아 탕으로 요리한 수무위완탕(虱目魚丸湯)도 추천 메뉴다.

주소 台南市安平區延平街160號 전화 886-6-222-9340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9:00, 토·일요일 10:00~20:00 가격 커짜이첸 60뉴타이완달러, 커짜이수 100뉴타이완달러, 수무위완탕 40뉴타이완달러



메뉴의 다양성 일관심 一專心

메뉴가 100가지도 넘는다. 야채 볶음, 튀김, 꼬치, 구이 등 매우 다양하다. 덕분에 여러 가지 메뉴를 골라 푸짐한 저녁 식탁을 차릴 수 있다. 부드럽으면서도 톡톡 씹히는 식감이 일품인 표고버섯 꼬치 카오상구(烤香菇)와 달콤한 파인애플 새우 요리 펑리사추(鳳梨蝦球)가 인기 메뉴. 신농거리 입구에 위치해 야외 테이블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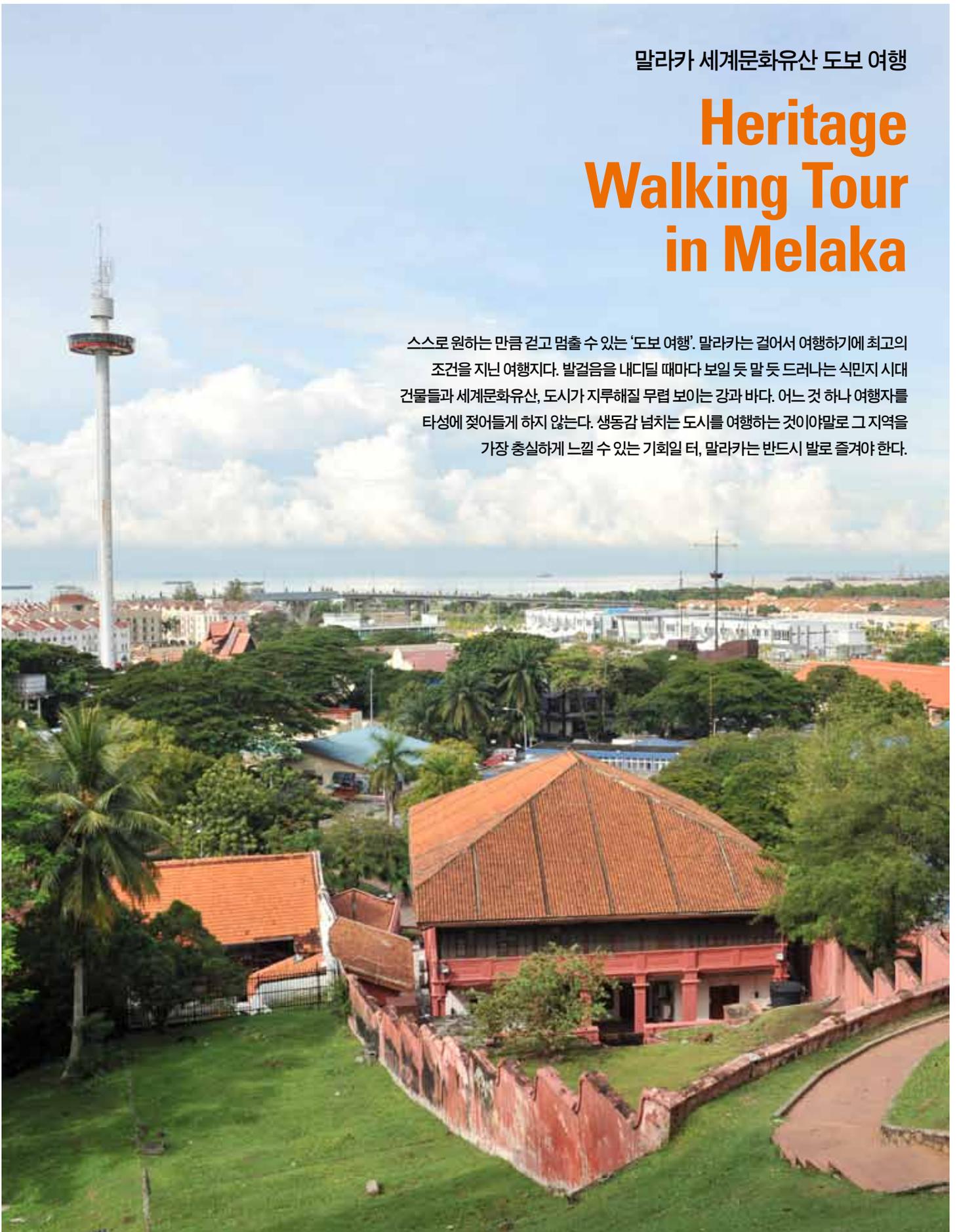
주소 台南市海安路二段神農街54號 전화 886-6-221-7727 운영시간 18:00~03:00 가격 카오상구 30뉴타이완달러, 펑리사추 160뉴타이완달러



말라카 세계문화유산 도보 여행

Heritage Walking Tour in Melaka

스스로 원하는 만큼 걷고 멈출 수 있는 '도보 여행'. 말라카는 걸어서 여행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지닌 여행지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보일 듯 말 듯 드러나는 식민지 시대 건물들과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지루해질 무렵 보이는 강과 바다. 어느 것 하나 여행자를 타성에 젖어들게 하지 않는다. 생동감 넘치는 도시를 여행하는 것이야말로 그 지역을 가장 충실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일 터, 말라카는 반드시 발로 즐겨야 한다.



문화 모자이크 말라카 Melaka

말레이시아 13개 연방주 중 하나인 말라카(Melaka) 주는 말라카 해협을 기점으로 순수 말레이 토착 문화와 과거 무역왕국 시대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중국 문화, 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 등 서구 세력의 지배를 통해 유입된 유럽 문화가 혼재된 도시다. 덕분에 말라카 시티 전체가 200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보호받고 있으며, 여행자들의 발길 역시 잦아졌다.



01 존커 스트리트에 위치한 바바 & 노냐 헤리티지 박물관은 화려한 건축 스타일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02 트라이쇼는 발 아픈 여행자의 친구다. 단 본인의 몸무게를 고려한 운전자 연령대 선택이 필요하다. 03 독립기념관 건물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식민지 시절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다.

Check Here!

바바 & 노냐 헤리티지 박물관

The Baba and Nyonya Heritage Museum

말라카에서 태어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만든 박물관인 바바 & 노냐 헤리티지 박물관은 100년이 넘는 중국인의 말레이 반도 이주사가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전화 06-283-1273 운영시간 10:00~12:30, 14:30~16:30 입장료 성인 10링깃, 5~12세 어린이 5링깃

다타란 파라완 말라카 메가몰

Dataran Pahlawan Melaka Megamall

말라카에는 두 개의 큰 쇼핑몰이 있는데, 하나는 마코타 퍼레이드(Mahkota Parade)고 또 하나가 다타란이다. 9개 층으로 이뤄졌으며 롤러스케이팅장, 극장, 맥도날드, 아웃렛 숍, 패션과 뷰티 브랜드가 포진하고 있다.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dataranpahlawan.com

세인트 프란시스 자비에르 성당 St. Francis Xavier Church

고딕 양식의 쌍둥이 탑 성당으로 1849년 프랑스 신부 파르베(Farve)가 16세기에 가톨릭을 동남아시아에 포교한 성 프란시스 자비에르(St. Francis Xavier)를 기리기 위해 세웠다. 교회 앞에는 그를 기리는 동상이 서 있다.

말레이시아 독립기념관

Proclamation of Independence Memorial

1957년 8월 31일은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로 말라카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 1985년 문을 연 독립기념관은 영국 식민 시절 건물을 리노베이션했으며 독립과 관련한 사진과 문서,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화 06-284-1231

트라이쇼 Trishaw

화려한 꽃과 인형, 뽕뽕한 스피커로 무장한 트라이쇼는 말레이시아에서 볼 수 있는 삼륜 자전거. 좁은 골목이 많은 말라카 시내 곳곳을 편안히 앉아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즐겨 이용한다. 스테디이스 앞쪽에서 타면 되고, 요금은 1시간에 40링깃.

노냐 음식 Nyonya Food

노냐 음식은 말라카 지역의 전통 요리로 볼 수 있는데, 코코넛 밀크 등을 많이 쓰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요리와 중국요리가 섞인 가정 요리를 말한다. '노냐'는 15세기 말레이시아에 정착한 중국 남자와 결혼한 말레이시아 여자를 부르는 말이다.



Chap Chye
갈릭소스로 데친 채소 요리



Inche Kabin
노냐식 소스를 가미한 프라이드 치킨



Nasi Puith
밥, 경우에 따라 채소와 함께 먹는다.



Udang Kuah Pedas
파인애플과 매콤달콤한 소스를 끼얹은 새우 요리



Cendol
말라카 전통 설탕 굴라(Gula)와 코코넛 밀크, 각종 젤리를 넣은 빙수. 기호에 따라 과일도 곁들인다.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라카 가기!

기차 KTMB(Keretapi Tanah Melayu Berhad)에서 운행하는 사우스 라인(South Line) 방면 기차를 타면 말라카 탐핀 역(Tampin Station)에 도착한다. 사우스 라인 기차는 말라카와 조호르바루(Johor Bahru)를 거쳐 싱가포르까지 도달하는 노선.

운영시간 09:00~23:00 요금 1등석 60링깃(이코노미 28링깃), 2등석 26링깃 홈페이지 www.ktmb.com.my

버스 쿠알라룸푸르 TBS(Terminal Bersepadu Selatan) 터미널에서 말라카 센트럴 터미널(Melaka Sentral Terminal)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할 수 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45분 정도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매시 15분에 출발한다. 요금은 12.3링깃. 홈페이지(www.tbsbts.com.my)에 들어가면 예약할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 공항(KLIA/ LCCT)에서 시내로 들어가지 않고 공항 말라카행 버스(트랜스나셔널, Transnasional)를 탈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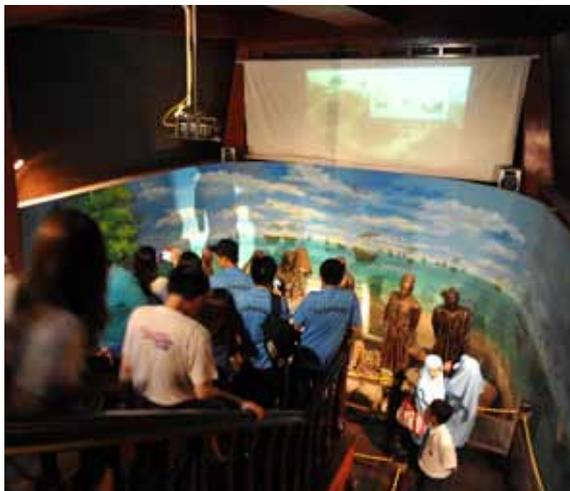
요금 KLIA 출발 성인 12.3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9.3링깃/ LCCT 출발 성인 21.9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16.5링깃 운영시간 KLIA 출발 08:00~23:00, LCCT 출발 07:30~21:00 홈페이지 www.ticket4u.com.my/transnasional/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격전지

에이 파모사 요새 A' Famosa (Porta de Santiago)

말라카 가이드북에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소개되는 지역으로, 문 앞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여행자로 한산할 틈이 없다. 현지인들은 에이 파모사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산티아고 요새. 1511년 에 만들어진 포르투갈군 요새로 네덜란드군과 영국군의 말라카 침공 때 많이 파손됐으나 1670년 네덜란드인이 다시 복원, 이후 관리 부재로 문 하나만 남았다. 주변의 여남은 대포들이 격렬했던 당시의 흔적을 말해준다. 요새를 통과하면 세인트 폴 언덕과 세인트 폴 성당으로 가는 오르막길로 접어든다.



소박하지만 고고한 위상

말라카 술탄 궁전 Melaka Sultanate Palace

‘술탄’은 이슬람교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인 칼리프가 수여한 정치적 지배자의 칭호다. 15세기 말라카 왕족이 살던 이곳은 목조로 지어져 ‘화려하다’기보다 ‘소박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전통 말레이시아 건축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쇠못을 쓰지 않고 나무와 나무를 잇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한다. 내부는 신발을 벗고 입장해야 하며, 당시 술탄 시대의 역사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마네킹을 설치해놓거나 말라카 문화에 대한 사진, 그림 같은 전시물이 가득하다.

전화 06-282-7464 운영시간 09:00~17:30 입장료 성인 2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1링깃 홈페이지 www.perzlim.gov.my

말라카 최고 타워 전망대

타밍 사리 타워 Taming Sari Tower

멀리서 봤을 때 탑이거나 놀이기구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 360도 회전하는 전망대다. 높이 80m(탑 전체 높이 110m), 탑승 최대 인원 77명, 탑승 시간 7분. 말라카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타워에서 말라카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어 여행의 첫 코스로 정하기에 손색이 없다.

전화 06-288-1100 운영시간 10:00~22:00 입장료 성인 20링깃, 어린이 10링깃 홈페이지 www.menarataming Sari.com

대항해 시대 흔적 해양 박물관 Maritime Museum

타워 건너편에 정박한 멋들어진 범선 한 척. 말라카 왕국에서 약탈한 보물과 함께 바다에 침몰한 포르투갈 범선 플로라 데 라 마르(Flora de la Mar)를 그대로 복원해 만든 해양 박물관이다. 배 안으로 들어가면 당시 범선에 실린 보물과 말라카 해양 역사, 세계 각국의 배 모형, 지도 등의 자료가 전시돼 있다. 더운 바깥 날씨에 비해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어놓아 도보 여행 중 쉬어가는 코스로도 적당하다.

전화 06-282-6526 운영시간 월~목요일 09:00~17:00, 금~일요일 09:00~20:30 입장료 성인 6링깃, 어린이 2링깃

낭만을 즐기는 강 말라카 리버 크루즈 Melaka River Cruise

말라카 여행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리버 크루즈다. 말라카 강을 따라 도심 한복판까지(Jeti Muara~Jeti Taman Rempah) 왕복 운항하기 때문에 강 주변의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캄퐁 판타이(Kampung Pantai) 거리와 캄퐁 후루(Kampung Hulu) 거리의 올망졸망한 옛 가옥들과 가옥을 장식한 벽화, 분위기 있는 카페 등은 감탄을 자아낸다. 리버 크루즈는 단순 왕복을 할 수 있지만 호호 서비스(Ho Ho Service) 티켓을 끊으면 7개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내리고 탈 수 있다.

전화 06-281-4322 운영시간 09:00~23:30 요금 리버 크루즈 성인 15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7링깃 호호 서비스 성인 30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15링깃 홈페이지 www.ppspm.gov.my

클로즈업 말라카 스테더이스 뮤지엄 콤플렉스

Stadthuys Museum Complex

말라카 관광의 중심은 네덜란드 통치 시절 지어진 건축물 중 규모가 가장 큰 스테더이스(Stadthuys) 박물관 콤플렉스다. 1650년 네덜란드 총독과 관리들이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말라카 중심부에 지었으며 네덜란드식 석공예와 목공예의 진수를 보여준다. 스테더이스와 말라카 강을 중심으로 유네스코 건축물 지역과 존커 스트리트 & 해변으로 구분된다. 스테더이스 앞에는 시계탑과 빅토리아 분수대가 있어 일종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으며 기념품 가게들이 이마를 맞대고 몰려 있다. 내부에 들어가면 말라카 왕국 시절부터 외세 통치 시절을 거쳐 최근까지의 역사적인 유물이 전시돼 있으며, 역사 & 민족 박물관(History and Ethnography Museum)과 거버너스 뮤지엄(The Governors Museum), 문학 박물관(The Museum of Literature), 교육 박물관(Education Museum), 민주주의 정부 박물관(Museum of Government Democracy)과 애드미럴 청 호 갤러리(Admiral Cheng Ho Gallery)를 함께 둘러볼 수 있다.



전화 06-284-1934 운영시간 09:00~17:30 통합 입장료 성인 10링깃, 12세 이하 어린이 4링깃 홈페이지 www.perzim.gov.my



데이 & 나이트 라이프 스폿

존커 스트리트 Jonker Street

존커 스트리트는 차이나타운, 잘란 항 제벳(Jalan Hang Jebet)으로 불리며 말라카를 찾는 여행자들의 저렴한 숙소, 쇼핑, 먹거리를 책임지는 곳이다. 거리 자체가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으며, 300년 이상 된 안티크 물품을 소장한 골동품 가게, 바바 & 노냐 헤리티지 박물관을 비롯해 모스크와 사원, 옛 네덜란드 하우스, 아티스트 갤러리, 노점 식당들이 밀집해 있다. 입구는 차이나타운임을 알리려는 듯 커다란 용 조형물이 들어서 있고, 여러 갈래 골목길이 나 있어 어디를 먼저 돌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이상적인 루트는 존커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히렌 스트리트(Heeren Street = Jalan Tun Tan Cheng Lock)와 잘란 투캉 베시(Jalan Tukang Besi), 잘란 투캉 에마스(Jalan Tukang Emas), 잘란 토크(Jalan Tokong)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나이트 마켓 금~일요일 18:00~24:00



눈으로 읽는 종교 역사

세인트 폴 성당

St. Paul's Church

에이 파모사 외에 말라카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세인트 폴 성당은 웅덩그렁하니 벽채만 남아 있어 애잔해 보이지만, 군데

군데 이끼 낀 모습이 더욱 자연스럽게 멋진 곳이다. 포르투갈 통치 시대인 1521년 두아르테 코엘류(Duarte Coelho)가 완공한 세인트 폴 성당은 포르투갈 사람들의 예배당으로 사용되면서 포르투갈의 그리스도 포교 거점으로 유명했으나, 가톨릭을 박해하던 네덜란드와 영국군의 공격으로 파괴되고 네덜란드 귀족들의 묘지로 쓰이게 된다. 벽마다 비스듬히 기대진 석관 뚜껑과 비석이 그 흔적. 내부에는 1553년 프란시스 자비에르가 죽은 뒤 인도의 고아(Goa) 지방으로 이장되기 전 6개월 동안 안치됐던 흔적이 있다. 6개월 동안 시신이 훼손되지 않아 이후 성지로 유명세를 탔다.



네덜란드 스타일

크라이스트 처치

Christ Church

스테더이스 옆에 위치한 네덜란드 건축 양식의 성당. 멀리서도 같은 양식의 시계탑이 있기 때문에 찾기 쉽다. 개신교를 믿는 네덜란드가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은 세인트 폴 성당을 대체하기 위해 1753년 만들었다고 한다. 교회 천장의 들보는 한 그루의 나무에서 잘라내 엮은 것으로 조립한 부분 없이 매끈하다. 손으로 직접 만든 좌석과 성가대 뒷자리 제단 위에 걸린 <최후의 만찬> 타일은 200년 전 모습 그대로 2013년에도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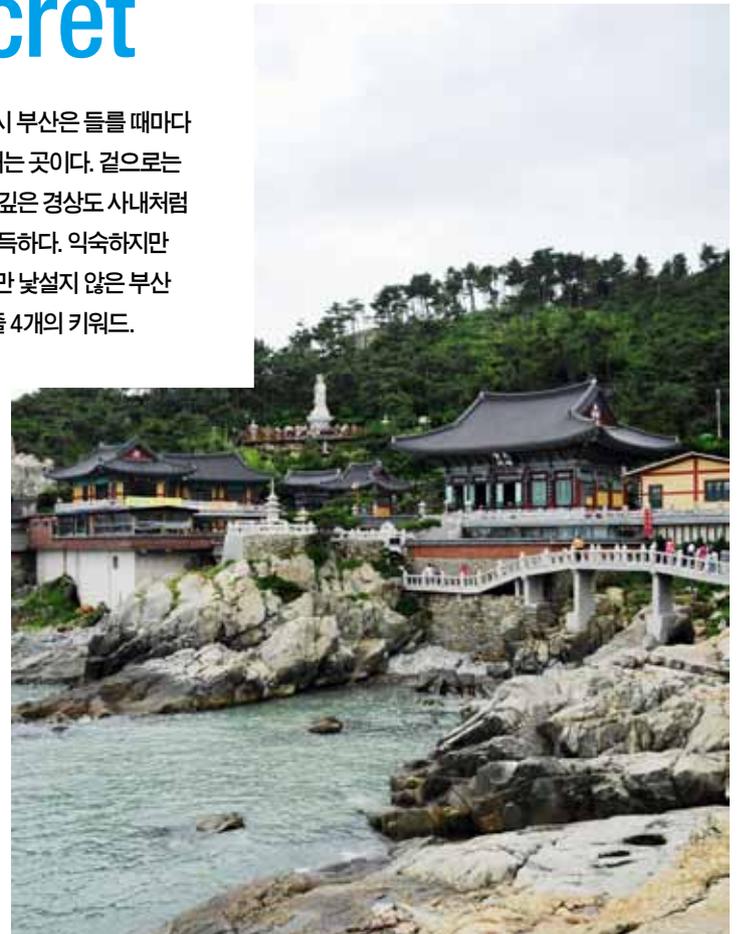
무에서 잘라내 엮은 것으로 조립한 부분 없이 매끈하다. 손으로 직접 만든 좌석과 성가대 뒷자리 제단 위에 걸린 <최후의 만찬> 타일은 200년 전 모습 그대로 2013년에도 빛을 발한다.



키워드로 떠나는
부산 여행

Busan's Hidden Secret

대한민국 제 2의 도시 부산은 들 때마다
다른 모습을 펼쳐내는 곳이다. 길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경상도 사내처럼
은근한 매력이 가득하다. 익숙하지만
새롭고, 신선하지만 낯설지 않은 부산
여행을 도와줄 4개의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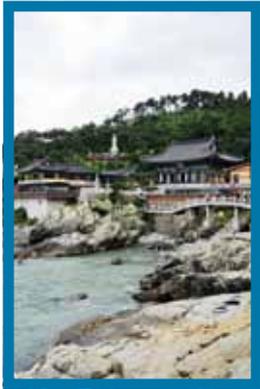


Keyword 1

스토리텔링

이야기와 함께 걷는 길

부산 남해안의 독특한 생활 문화와 역사를 가장 가깝게 느끼려면 자연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가야 한다. 2009년부터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코스와 함께라면 한결 풍성한 부산 여행이 가능하다.



바닷길 위 드라마 로드 스토리 투어 Road Story Tour

부산의 북쪽 기장에서부터 영도까지 아우르며 아름다운 해안과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드라마틱한 스토리까지 있는 관광 코스.



해동 용궁사

해안 절벽에 자리 잡은 절. 너른 바다를 절집 마당으로 삼은 '수상법당'으로 통한다. 고려 공민왕의 왕사였던 나옹 선사가 1376년에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두 차례에 걸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됐다. 바위 위에 세워져 있어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용궁사의 절경은 저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주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사랑리 416-3
전화 051-722-7744 입장료 무료(주차비 2000원) 홈페이지 www.yongkungsa.or.kr

기장을 대변

기장군 기장을 대변리에 있는 항구. 대변마을은 전국 어촌을 대상으로 선정한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속하는 곳이다. 멸치로 유명하며, 옛 이름은 용암이었다. 물살 센 동해에 접해 있으나 대변항 앞에 위치한 죽도가 거센 파도의 방파막이 역할을 한다. 대변리 해안을 따라 횡집들이 즐비하며 멸치회, 장어구이가 주종을 이룬다.

찾아가는 길 해운대역 7번 출구, 181번 버스 탑승 후 대변 입구 정류장 하차



역사를 느끼다 평화 전쟁 투어 Peace and War Tour

임진왜란부터 6·25전쟁까지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는 외양포 마을을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살펴보는 코스.



외양포 마을

부산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큰 거덕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을. 외양포에는 현재 20채가량의 집에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이 사는 집은 모두 100여년 전 지은 요새 사령부 관련 건물이다. 헌병대 막사, 무기 창고, 장교 사택, 사병 내부반 등을 수리해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는 것. 그렇다 보니 곳곳에서 일본 전통 가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하지만 우리 근대사의 아픔이 어느 곳보다 짙게 배어 있는 곳이다.

찾아가는 길 하단 교차로에서 거덕도행 58번 버스 탑승 후 하루 4차례 운행하는 선박 이용 도로로 대항 1500원, 외양포 2000원

자연 속 이야기 부산 환경 투어 Busan Eco Tour

숨어 있는 도심 속 생태·환경·역사 스토리가 담긴 천혜의 관광지. 다양한 체험 거리와 흥미롭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최고의 에코 투어 코스로 손꼽힌다.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다양한 연구와 활동으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를 보전하고, 각종 프로그램과 전시회를 준비해 자연과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해 지어졌다. 갯벌 체험, 야생동물 진로 체험, 습지 탐방 등 각종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도 제격이다.

찾아가는 길 지하철 1호선 하단역 3번 출구, 시내 버스 53번·53-1번·53-2번 탑승 후 을숙도 휴게소 정류장에서 도보 5분 전화 051-888-6861 홈페이지 wetland.busan.go.kr

아미산 전망대

2011년 2월 21일에 개관한 아미산 전망대는 모래섬, 철새, 낙조 등 천혜의 낙동강 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뷰포인트. 계절마다 새로운 낙동강 하구 시주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부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전시 시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추고 있어 낙조를 즐기며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낙조 2길 전화 051-265-6863



Keyword 2

젊은 예술

톡톡 튀는
감성 여행

부산의 트렌디한 감성이 궁극하다면 젊은 예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답이다. 메마른 감성을 200% 충전시켜줄 부산의 재기 발랄한 공간 속으로.



부산의 몽마르트르 언덕 달맞이고개 문화의 거리

한국에도 프랑스 예술의 심장, 몽마르트르 언덕 못지않은 곳이 있다. 언제나 해운대 해변가의 왼편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는 달맞이고개다. 이 달맞이고개에 13개의 갤러리가 모여 있어 취향대로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물론 갤러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을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커피 체인점은 다 모아놓은 듯한 모양새가 유쾌해 보이지는 않지만 간간이 갤러리와 잘 어울리는 카페·레스토랑도 눈에 띈다. 해운대에서 해안을 따라 송정까지 15번 이상 굽어진다고 하는 달맞이 길은 빛나 무와 송림이 울창하게 들어차 있어 나들이 코스로도 제격이다.

찾아가는 길 지하철 1호선 해운대역, 택시 이용(기본요금), 버스 이용 시 노보텔 호텔 앞에서 도보 15분



알록달록 다양한 색채가 엮힌 동네
감천동 문화마을

‘부산의 레고 마을, 산토리니’로 불리는 감천동 문화마을이 실은 1958년부터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촌이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었다. 누가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마을은 온통 비비드한 컬러 일색이다. 2009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인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픽추>, 2010년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학생과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어낸 벽화, 조형예술, 빈집을 이용한 문화 공간 등이 골목마다 숨어 있다.

찾아가는 길 지하철 토성동역 6번 출구, 부산대학병원 암센터 앞 마을버스 2번·2-1번·1-1번 / 괴정역 6번 출구, 괴정 4거리 뉴코아아웃렛 맞은편 마을버스 1번·1-1번 전화 마을정보센터 ‘하늘마루’ 070-4219-5556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amcheon2

문화의 모든 것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 막걸리와 금정산성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부산 북부에도 주목할 만한 예술 공간이 있다. 김정명 부산대 예술대학 교수가 자신의 생활공간이자 작업실을 전시장으로 꾸민 ‘김스아트필드 미술관’이 그것. 이곳에서는 김 교수의 조각이나 설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 아이디어 기발한 초대 기획전도 수시로 열린다. 피카소, 앤디 워홀, 키스 해링, 이중섭, 미키마우스, 돌리, 짱구 등이 벽면 한 자리씩 자리 잡은 죽전마을 대나무숲 벽화길 역시 함께 둘러보면 좋다.

주소 부산시 금정구 금성동 285(죽전 1길 23) 전화 051-517-6800 홈페이지 www.kafmuseum.org 운영시간 4~8월 10:00~18:00, 9~3월 10:00~17:00(월요일 휴관)



플리엔 오래 경성대 문화 골목

부산 젊은이들이 모이는 핫 플레이스 경성대, 부경대 앞에 ‘문화 골목’이 숨어 있다. 단독주택의 담을 헐어 틈새 공간을 만든 다음 사라져가는 도시의 잔주름인 골목을 복원 시켰다. 그래서 문화 골목 입구는 세 군데다. 80석을 갖춘 소극장 ‘용천지랄’, 채광이 살아 있는 전시장 ‘석류원’, 2만 장의 CD와 LP가 꽂힌 뮤직 퍼브 ‘노가다(老歌多)’, 전통 술을 파는 ‘고방’, 자개장 옆에서 위스키와 칵테일을 즐기는 오리엔탈 바 ‘색계’, 정원 같은 커피숍 ‘다반’까지 쪽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치 필요한 문화 충전 완료!

찾아가는 법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 1번 출구 주소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2-4 전화 051-625-0730



부산에도 온천수가 팔팔팔!

동래 온천 노천 족탕

부산 하면 해운대와 남포동 밖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온천장을 소개한다. 일본으로 온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은 과연 부산 온천장의 우수한 온천에 대해 들어봤을까? 일본의 온천수 못지않게 피부가 보드라워지는 탄산 온천수가 솟

는 동래 온천단지에는 야외에서 무료로 족욕을 즐길 수 있는 노천 족탕이 있다. 수건 자동판매기도 있으니 걱정 말고 발을 담그자. 온천욕을 하고 싶다면 인근의 만수탕, 녹천탕, 천일탕, 현대온천, 중앙온천, 허심청 등의 대중탕을 찾을 일이다.

찾아가는 법 녹천호텔 바로 옆 위치 운영시간 10:00~20:00

달빛 마사지 달빛 산책 문탠 로드

선탠(Suntan)이 아니다. 달 아래서 하는 문탠(Moontan)이다. 총 거리는 2.5km로 달빛 꽃잠길(0.4km), 달빛 가온길(0.4km), 달빛 바투길(0.7km), 달빛 함께길(0.5km), 달빛 만남길(0.5km) 등 5개로 나뉜다. 코스를 전부 걸어도 좋지만, 차를 가져왔다면 미포항 인근에 세워두면 편리하다. 밤에는 달빛을 해치지 않는 은은한 조명이 숲을 밝혀줘



연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조명이 켜지는 시간은 일몰 시점에서 23시까지, 새벽 5시부터 일출까지이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전화 051-749-4081 홈
페이지 http://moontan.haeundae.go.kr

Keyword 3
그린 힐링

치유의 시간

부산으로의 여행을 감행했다면 일상의 스트레스는 던져버리고 온전한 휴식을 만끽해보자. 이 도시가 품은 청정 자연 속에서는 몸도 마음도 평온을 찾는다.



Keyword 4

가지각색 먹거리

맛 따라 부산 탐험

갖가지 해산물과 군것질거리 넘쳐나는 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식 탐방이다. 먹거리 가득한 골목 구석구석 하나뿐인 맛을 찾아 떠나보자.



미식 성지

PIFF 먹자골목
부평동 족발골목
창선동 먹자골목

부산의 리얼 맛집을 가고 싶다면 세 골목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이곳을 찾을 것! 골목마다 먹어봐야 할 음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기름에 튀겨낸 호떡에 해바라기씨 · 땅콩 · 건포도 ·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로 속을 채운 씨앗호떡은 PIFF광장에서 맛볼 수 있다.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다녀갔다고 ‘승기 호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냉채족발은 부평동 족발골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매운 소스와 시원한 냉채의 조화가 아름다울 뿐이다. 비빔당면은 역시 창선동 먹자골목 좌판에서 먹어야 제맛이다. **찾아가는 법**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에서 도보 10분



부산의 먹거리 3

갈미조개

갈매기 부리같이 생겼다 하여 갈미조개란 이름이 붙었다. 보통 12월부터 다음 해 4월에 걸쳐 낙동강 하구에서 직접 채취한다. 산란을 앞둔 1~3월이 제철. 시원한 맛을 내는 덕분에 탕이나 찌개로 끓여 먹기도 하고, 굵거나 볶아서 술안주로도 애용한다.



초량밀면

담백하면서 달콤한 맛도 나는 특유의 밀면발. 맛도 최고지만 가격이 아주 착하다. 물밀면 · 비빔밀면 각각 3500원. 푸짐하게 나오는 고기만두 또한 초



량밀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로 가격은 3500원이다. 부산역 맞은편이니 꼭 들러 맛 좋고 푸짐한 인심을 느껴보자.

기장 전복죽

인심까지 후한 기장의 횃집들. 특히 자연산 전복으로 만든 전복죽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 고소함의 품격이 남다르다고나 할까.



특히 전복 내장을 넣어 끓인 전복죽이 진짜 중의 진짜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다니. 전복죽과 함께 먹는 깍두기까지 일품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다섯 가지 에코힐링

ECO HEALING



최근 여행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힐링이다. 육체의 건강한 삶으로 대변되는 웰빙에서 정신적 건강을 강조하는 힐링으로 삶의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불교의 템플스테이를 시작으로 자연휴양림, 트레킹 등은 힐링 여행의 시초. 한데 기준은 없다. 정적인 것도 동적인 것도 힐링이 되는 요즘이다. 본인 스스로 그 답을 내릴 수 있다. 굳이 하나를 제안하라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지 않을까.

건강한 여행이 시작되다

건강이 트렌드다. 인스턴트 음식에 시달리는 위장을 달래기 위해 채식을 하고, 집 앞 편의점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들러 건강검진을 받는다. 길을 걷다가 눈만 돌리면 종류도 가지각색인 명상 스튜디오 간판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여행의 테마도 바뀌고 있다. 짧은 시간에 강행군을 감수해서라도 좀 더 많은 곳을 둘러보는 일정은 이제 여행이라고 할 수 없다. 자연(Ecology)과 치유(Healing)의 합성어로 에코힐링이 최근 여행의 트렌드가 됐다.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치유력을 회복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맨발로 흙을 밟으면 발바닥에 느껴지는 시원한 촉감과 숲 속에서 자연산 산소와 피톤치드를 흠뻑 들이마실 때 느껴지는 상쾌한 기분은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 TPO 회원 도시들 역시 각기 다른 자연을 통한 치유, 즉 에코힐링을 선도하고 있다.



행복 에너지 베트남 다낭 비치

50km에 이르는 다낭 비치는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세계 6대 럭셔리 비치'에 뽑힐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를 자랑한다. 특히 길게 늘어선 기차 모양의 해안선을 보노라면 가슴이 뻥 뚫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다에 면한 다낭의 해변은 다낭 베이(Da Nang Bay)와 손 트라 페닌술라, 이스트 시(East Sea)의 세 개 지역으로 나뉜다. 다낭 베이는 다낭 중심지 북쪽에 펼쳐진 해변으로 남오, 슈안 티우, 탄 빈(Nam O, Xuan Thieu, Thanh Binh)으로 나뉜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비치는 이스트 시로 뾰얀 속살을 내비치는 해변이 20km 넘게 이어져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로 북적댄다. 손 트라 지역은 모래사장만으로 펼쳐진 이스트 시와는 달리 푸른 숲이 우거진 곳. 베트남 현지인들도 힐링을 위해서 이곳을 많이 찾을 정도다. 수영과 낚시, 트레킹, 다이빙 등의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는 액티비티 비치이기도 하다. 숲과 바다가 공존하고 스킨스쿠버, 서핑을 비롯해 각종 해양 스포츠가 유희하는 다낭의 바다로 향한다면 올봄, 완벽한 힐링을 체험할 수 있다.

코타키나발루 에코의 심장 네이처 리조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는 보르네오(Borneo) 섬 북쪽 끝, 사바(Sabah) 주에 있는 중심 도시다. 소박하고 친절할 사람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함께 최상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리조트가 모여 있다고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도시에서 철저히 벗어나기 위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갔다. 코타키나발루 부근에 자리한 다섯 개의 큰 섬 중 하나인 가야 섬(Pulau Gaya). 진짜 '에코(Eco)'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분가라야 아일랜드 리조트는 날것 그대로의 정글에 집을 지었다. 마치 우거진 정글 속에 숨어 있는 듯한, 정글과 한 몸이 된 리조트랄까. 새하얀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바다를 지나 정글로 들어갔다. 산 여기저기에 빌라들이 각각 떨어져 있어 주로 전동차 버기(Buggy)를 타고 이동한다. 리조트를 거닐다보면 40종류의 다양한 야생화를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그중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국화인 히비스커스(Hibiscus)가 눈에 많이 띈다. 하늘에 닿을 듯한 키 높은 나무 옆에 빌라가 있고, 객실 사이로 나무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리조트를 만들면서 나무를 베지 않은 것이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사람이 잠시 머물다 떠나는 느낌. 자연을 생각한 디자인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 건축 시상식에서 리조트 부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겪은 정글 리조트의 법칙은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다.



계절을 앞선 따뜻한 힐링

일본 미야자키

미야자키(宮崎)현은 일본의 남서쪽, 규슈에 있다. 3월부터 민소매 차림으로 나들이가 가능한 이 따뜻한 지역은 일본 내에서도 힐링 여행지로 유명한 곳. 상쾌한 기후 덕분이다. 모든 종류의 여행이 그렇지만 힐링 여행의 경우 맑은 날씨가 주는 과급력이 서너 배쯤 되는 것. 거기에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에서 경험하기 힘든 이국적 정취가 물씬 풍기니 절로 힐링이 된다. 공항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밀려오는 열대의 향내까지는 아니어도, 향긋한 바다 냄새와 우거진 야자수를 비롯한 아열대 수목은 일본이 '열도(列島)'가 아니라 '열도(熱島)'라는 착각이 들게 한다. 일본은 냉대와 아열대 기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남북으로 긴 나라 가운데 하나다. 굳이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오키나와까지 가지 않더라도 열대, 또는 아열대의 풍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미야자키현인 셈이다. 미야자키현에는 몇 곳의 힐링 명소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곳은 아오시마. 니치난(Nichinan) 해안 북단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둘레는 1.5km에 불과하다. 입구에 들어서면서부터 향기가 난다. 분명히 바닷바람일 텐데 꽃향기가 난다. '도깨비의 빨래판'이라는 불리는 바닷가의 희귀한 바위도 인상적이다. 파도의 침식작용에 의한 모양새일 텐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봐도 인위적으로 보일 만큼 독특하다. 이러한 빨래판 같은 바위가 섬 전체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미야자키에서 가장 유명한 곳, 우도 신궁(Udo Jingu).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에 걸터앉은 이 신사는 직접 보고 걸으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장관을 연출한다. 아열대의 자연과 일본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미야자키현. 저위도상에 있는 덕분에 미야자키현은 이미 지난 2월 말부터 봄이 시작되었다. 미야자키 현은 계절의 기쁨을 앞당겨서 맛볼 수 있는 진정한 힐링 여행지가 될 것이다.

바다의 끝은 정신적 위안 중국 쑤야

중국의 땅끝, 하이난 최남단에 있는 쑤야는 중국에서 가장 '핫'한 힐링 휴양지가 됐다. 무엇보다 쑤야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자연이다. 그중 하늘과 바다의 끝 '텐야하이자오(天涯海角)'는 쑤야 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3km 떨어져 있다. 시원하게 펼쳐진 2.8km의 해변과 부드러운 백사장 사이로 오래된 나무처럼 큼지막한 바위들이 큰 산을 이루듯 파도를 마주하고 있다. 텐야하이자오에는 모두 5개의 대표 바위가 있는데 자연석이라고 하기에는 마치 만들어진 조각 작품처럼 여성스러운 곡선을 자랑한다. 이곳의 바위들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바위의 웅장한 모양 때문도 있지만, 중국의 최남단 하이난 섬에서도 가장 남쪽에 위치해 하늘의 끝이자 태양이 가장 높게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오랜 시간을 파도와 싸워 견디어낸 바위가 아닌 지구와 바다의 끝을 상징하는 것. 특히 중국 설날이 되면 이 지구의 끝에서 만나는 바위를 만지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오는 힐링 여행객들로 해변이 가득 찬다. 수많은 중국인은 이 바위를 만지며 소원을 빌고는 정신적인 위안과 용기를 얻고 떠난다.



한국 산사의 하루 템플스테이

스님들의 수행을 체험하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의 주말이 분주해졌다. 템플스테이란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으로 산사에 머물며 불교에서 행해지는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자연 속에서 묵언과 참선을 통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삶에 새로운 활력을 찾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템플스테이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 여행객의 참여도 늘어나는 추세. 프로그램은 예불, 참선, 다도, 발우공양 등 대부분이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를 둘러볼 수 있는 사찰 순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선무도 등 사찰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가 무엇보다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찰 주변의 경관을 둘러보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사찰 숲 속 산책에 있다.



힐링을 마치면 나를 찾을 수 있다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도심의 빌딩 숲 한가운데서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마다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스스로 도약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할 땐 두말없이 자연과 멋스럽게 어우러진 리조트를 떠올린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일. 정말 몸이 힘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고, 마음껏 먹고, 쿨쿨 자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다 그 속에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를 음악 삼아 술향이 가득한 술잔차 한잔의 여유로움을 만끽하게 된다. 힐링 여행은 지금 내가 머무는 곳,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감정과 느낌, 지금 나의 기분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여행이다. 참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힐링 여행 이후에는 그 영향이 생활 곳곳에 확장될 수 있다. 아울러 여행 이후 스스로를 진단하게 된다. 치유와 치료는 다르다. 치유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예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유는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 아닌, 아프지 말라고 미리 손을 쓰는 행위다. 위에서 언급한 자연을 벗 삼아 하는 다섯 가지 힐링 여행은 제각기 다르다. 힐링 여행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힐링이란 무엇인가.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그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



서울, 한국

TPO Travel Trade 2012-KOREA 개최

2012년 12월 10일, 서울에서 'TPO 해외공동마케팅(TPO Travel Trade 2012 - KOREA)'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TPO의 일본 회원 도시인 시모노세키, 다케오(가입 예정), 중국 회원 도시인 광저우·싼야·말레이시아 회원 도시인 코타키나발루, 러시아 회원 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 타이완 회원 도시인 타이중 등 총 7개 회원 도시가 참가했다. 이 도시들은 한국의 주요 여행사를 직접 방문, 각 도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한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이들 참가 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투어 2000 등 3개 종합 여행사를 방문해 각 도시의 최신 홍보물과 뉴스를 직접 전달, 설명하고 세일즈 미션을 수행했다. 또한 10일 저녁에는 방문한 여행사들의 각 바운드 상품 담당자들과 함께 TPO 회원 도시인 부산시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시장의 최신 동향과 현장의 의견을 파악하며, 한국 여행업계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TPO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주요 여행사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향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주, 한국

TPO Tourism School 2012 개최

TPO와 한국 전주시가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시 전통문화전당, 짜즈어라운드호텔 및 전주시 일원에서 6개국 16개 TPO 회원 도시 관광 당국 공직자들과 함께 'TPO 투어리즘 스쿨 2012(TPO Tourism School 2012)'를 개최했다.

첫날, 11일 행사는 TPO 회원 도시 관광 공직자뿐만 아니라 전주 시민, 공무원, 관광 관련 업체 및 관광교육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정책'을 주제로 특강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광무 원장이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정책을 소개했으며, 한국관광레저학회 윤병인 학회장은 좌장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문화관광정책 토론회를 이끌었다.

다음 날 12일 오전에는 호서대학교 송재복 교수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연구-전주시의 비빔밥 유네스코 등재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전주시청 조영호 계장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연구-전주시의 슬로시티 가입사례' 발표가 이뤄졌다. 또한 12일 오후와 13일 오전에는 전주시의 관광산업시설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의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광 분야 공직자들의 관광산업 관리능력 배양과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개최되는 'TPO 투어리즘 스쿨'은 관광 분야의 실무 책임자들이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교육 참가자들의 관심도가 높고 효율적인 실무교육이 되고 있다.



부산, 한국

TPO 사무국, TPO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행사 개최

2012년 12월 27일, TPO 사무국은 부산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동산원 직원과 어린이 60여 명을 부산해운대 스펀지로 초청해 'TPO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나눔 행사에서는 동산원 직원들과 어린이들에게 저녁 식사와 새해 선물 및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어린이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 <호빗(The Hobbit)>을 관람하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본 행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동산원 원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TPO 사무국 측은 매년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다.



익산, 한국

TPO 회원 도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세미나 개최

2012년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TPO사무국과 전북 익산시는 원광대학교에서 익산시민, 공무원, 학생, 관광 관련업체 및 단체들과 함께 회원 도시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의 대표적 스토리텔링 학자인 경희대 최혜실 교수의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주는 문화유산, 문화콘텐츠'와 지역의 전문 스토리텔링 학자인 박태건 교수의 '구술사를 활용한 스토리텔링과 익산 지역 관광활성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으며, 안동의 대표적 문화관광테마 여행사 대표인 류승기 씨의 스토리텔링 안동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관광레저학회 운영진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학계, 언론계, 업체 스토리텔링 전문가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통한 익산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중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가미한 힐링 익산, 치유의 길 익산, 서동요의 민중 판타지, 스토리텔링 접근 방법에 따른 관광객 공감,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가치 전달방법 등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이뤄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실질적인 방안을 익산시 관광에 적용해 현재 부족한 하드웨어적인 관광 인프라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문화자원을 관광객이 소비하는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관광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TPO사무국 박순재 차장은 앞으로도 회원 도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특히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업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스탄불, 터키

TPO 사무국, 세계관광기구(UNWTO) 준회원 총회 참석

세계관광기구(UNWTO) 준회원(Affiliate Member) 총회가 동서양의 접점 지역인 터키의 이스탄불 시 할릭 콘그레스 센터(Halic Congress Center)에서 201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65개 준회원 기관을 비롯해 관광전문가와 관광업계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준회원총회는 기존의 정회원인 각국 중앙정부 외에 각종 관광 관련 국제기구, 지자체, 관광업계, 및 학계 등 다양한 기관이 총망라한 관광 분야의 종합적인 단체로서 그동안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세계관광기구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왔다.

이번 총회는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체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사업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으며, TPO는 이번 총회에서 준회원들의 조직 구성과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TPO기구 소개와 공동사업을 홍보했다. 특히 아태지역 회원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TPO 회원들에게도 도움 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대전총회에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초청해 함께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TPO는 2008년부터 세계관광기구의 준회원으로 가입해 투어리즘 스쿨(Tourism School), 뉴스레터(Newsletter),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해왔다. 세계관광기구와 3차례 공동 개최한 바 있는 투어리즘 스쿨은 관광 분야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훌륭한 관광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타이완, 타이완

TPO 사무국, 2012 아시아 도시 관광 서밋 참석

TPO 주환명 사무총장과 이소정 기획팀장은 2012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타이완 타이난 시에서 개최된 '2012 아시아 도시 관광 서밋(2012 Asian Cities Tourism Summit)'에 참석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완 총 5개국 10여 개 도시가 참석한 본 행사는 관광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도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 서밋에서 주환명 사무총장은 칭 테 라이(Ching Te-Lai) 타이완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향후 TPO와 타이완 시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했으며, 본 행사에 연사로 참석해 문화관광과 농촌관광에 대한 범도시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모여 서로 우호를 증진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이 된 본 행사를 계속해서 타이완 내 다른 도시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03 March 2013

Festival Calendar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3월 1~3일
자바 재즈 페스티벌
장소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장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즈 축제. 재즈가 주요 장르지만 클래식 음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유명 뮤지션뿐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현지 뮤지션도 참여해 다양한 음악적 기량을 뽐낸다. 특히 올해는 영국 R&B 가수 리사 스탠스필드, 조스 스톤, 폴란드 출신의 바시아가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제주 | 3월 8~10일
제주들불축제
장소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새벌오름

제주에는 '방애'라는 목축 문화가 있다. 소와 말 등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중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고자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 목아지 들판에 불을 놓던 풍습이다. 제주들불축제는 '방애'라는 제주 고유의 전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한 축제로 대형 오름 '눌' 점화, 오름 불 놓기 등을 통해 올 한해의 무사안녕과 만사형통을 기원한다.



타이완, 타이난 | 3월 9~18일
타이완 국제 난 전시회
장소 타이완 오키드 플랜테이션

타이난에서 형형색색의 난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 세계 3대 난 박람회 중 하나로 26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바이어와 방문객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역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부대 행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난 전문가가 참석하는 국제 난 심포지엄, 난 경쟁 쇼 등이 있다.



중국, 광저우 | 3월 18~21일
중국 국제 가구 박람회
장소 광저우 수출입상품 교역회전시관

광저우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걸쳐 연 2회 열리는 아시아 최대의 가구 박람회. 중국 현지 및 세계에서 이름 있는 가구회사가 총출동하는 자리다. 전문 바이어와 방문객을 초청해 현대식 가구부터 클래식·야외용·유아용 가구 등 다양한 가구 제품을 전시한다. 해외 유명가구의 트렌드와 디자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3월 20일
끼라뻐 사삐
장소 수라바야 지역 일대

끼라뻐 사삐는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유산으로 이스트 자바에 왔면 꼭 봐야 하는 관광 아이콘. 기수가 직접 황소 두 마리를 몰고 경기를 펼치며, 기수는 두 마리 황소 사이에 뻗어 있는 두 개의 나무에 부착한 판자 위에 서서 경주를 한다. 경주는 두 조로 나뉘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람객들의 열렬한 함성 속에서 흥겨운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한국, 광주 | 3월 29일~4월 7일
광주봄꽃박람회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야외일원

봄이 왔음을 알리는 봄꽃박람회가 '꽃향기 가득한 동화나라'를 주제로 광주에서 열흘간 열린다. 장미정원, 튜립정원, 약초정원 등 20여 개의 각기 다른 테마의 정원은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한다. 60개 회사의 100개 부스에서 화훼용품 및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화훼 관련 전문 강좌 및 각종 체험행사도 진행되니 관심이 있다면 참여해볼 것!



타이완, 가오슝 | 3월 30일~4월 7일
가오슝 송강제
장소 네이먼 일대

청나라 때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자위대를 만들어 대항했던 데서 유래한 축제. 차이니스 타이베이 전통 사찰 행사의 하나로 칼이나 창과 방패, 곤봉을 든 병사로 변장한 이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북소리, 함성소리와 함께 전진하며 화려한 무공과 당시 전투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한다.

04 April 2013



한국, 창원 | 4월 1~10일
진해군항제
장소 중원로터리 및 진해구 일원

매년 4월이면 36만 그루의 벚꽃이 개화하면서 창원시 진해구 전체가 하얗거나 연분홍빛으로 물든다. 한국 최대 벚꽃 개화지에서 열리는 열흘간의 축제는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관광객의 두 눈을 사로잡는다. 공식 행사인 승전 행사와 추모대제를 비롯해 군악의장페스티벌, 한류스타콘서트, 진해루 불꽃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는 단순히 '꽃 구경'에만 그치지 않는다.

태국, 방콕 |
4월 13~15일
송크란 축제
장소 방콕 카오산 로드 일대

태국 달력으로 4월은 새해가 시작되는 시기다. 송크란 축제는 '태국 물 축제'라고도 불리는데, '축복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물을 뿌리기 때문이다. 축제 기간에는 도시 곳곳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물총을 가지고 물싸움을 벌이는 진기한 풍경이 연출된다.



중국, 상하이 |
4월 21~29일
상하이 모터쇼
장소 상하이 신국제박람센터

중국의 경제수도 상하이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모터쇼가 열린다.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모터쇼에서는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증명해 보임과 동시에 더 나은 삶을 위한 환경 친화적 기술을 선보인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 독일의 폭스바겐, 프랑스의 푸조, 일본의 도요타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참가해 눈길을 끈다.



한국, 울산 |
4월 25~28일
울산고래축제
장소 태화강 및 장생포 일대

1995년 장생포에서 마을 축제로 시작해 울산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 잡았다.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리얼 선사체험촌, 대형 고래 모형과 암각화에 있는 선사 고래잡이를 재연한 멀티 수상쇼, 시민들이 참여해 태화강변을 따라 펼치는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친환경 축제로 고래의 생태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한국, 제주 |
4월 5~7일
제주 왕벚꽃축제
장소 제주종합경기장 일원

화려한 왕벚꽃과 함께 새봄의 향연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따뜻한 기후 덕분에 한국에서 제일 먼저 벚꽃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제주. 제주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제주 자생종인 왕벚나무를 만날 수 있다. 개막축하쇼를 시작으로 왕벚꽃 의상 퍼포먼스, 왕벚꽃 테마관 · 관광관 · 환경관 등 전시 이벤트가 이어져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장식한다.



필리핀, 마닐라 |
4월 11~13일
알리완 축제
장소 필리핀 문화센터 일대

7107개의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다. 알리완 축제는 각 지역의 주요 축제와 종교, 문화와 정취를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다양한 부족과 원주민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추고 행진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길거리 댄스 퍼레이드, 미인대회, 마차 행렬이 메인 이벤트이며 각 이벤트의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지급된다.



일본, 나가사키 | 4월 25~29일
나가사키 범선축제
장소 나가사키항

매년 4월 말이면 항구 도시 나가사키에는 여러 나라의 범선이 집결한다. 메가미 대교(女神大橋) 밑에서 우아한 범선의 모습이 보이면 축제가 시작된다. 새하얀 돛을 펼치는 '세일드림', 선내를 견학할 수 있는 '선내 일반 공개', 범선을 타고 나가사키항 주위를 크루즈 하는 '체험 크루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05 May 2013



한국, 전주 | 5월 2~5일
전주한지문화축제
장소 전주전통문화관 일원

한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한 눈에 보고 싶다면 전주한지문화 축제가 정답이다. 전국한지공예대전과 함께 막을 올리는데 수상자들과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 전시는 축제의 서막이다. 한지 패션쇼에서는 대중성과 산업성을 모두 살린 의상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지 장인과 함께 하는 한지뜨기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이 기회에 '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시모노세키 | 5월 3~4일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
장소 시모노세키 간몬해협 일대

간몬해협을 무대로 벌어진 역사적 사실이 축제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된다. 시모노세키 해협 축제는 흥겨운 일본 전통문화와 시모노세키의 정서를 만끽할 수 있는 볼거리다. 단노우라(壇ノ浦) 전투에서 패배한 헤이케(平家)를 기리는 '센테이제'와 수십 척의 배에 올라탄 갑옷을 입은 무사가 홍백의 깃발을 휘날리며 당시의 결투를 재연하는 '겐페이(源平) 선박전투'는 장관을 이룬다.



일본, 후쿠오카 | 5월 3~4일
하카타 돈타쿠 항구 축제
장소 후쿠오카 시내

하카타 돈타쿠 항구 축제는 규슈에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행사. 200만 명의 사람이 찾는 축제로 830여 년 전의 민속행사인 '하카타 마쓰바야시(博多松灘子)'를 하카타 주민들이 발전시킨 것이 지금의 축제가 됐다.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주걱을 두드리고 춤추며 고후쿠마치(呉服町) 교차로에서 텐진(天神) 교차로까지 1230m를 행진하는 돈타쿠 퍼레이드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 5월 5일
문화와 꽃 퍼레이드
장소 영웅기념비, 수라바야 시청 일대

매년 5월이면 수라바야는 축제 분위기로 들뜬다. 5월 5일에 열리는 문화와 꽃 퍼레이드를 통해 축제의 막이 오른다. 각각각색의 꽃으로 장식한 수레와 함께 원주민 복장을 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며 인도네시아 고유의 문화를 선보인다. 퍼레이드 이후엔 수라바야 72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한국, 춘천 | 5월 19~26일
춘천마임축제
장소 춘천시 일원

언어가 아닌 몸짓과 관련된 마임을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 축제, 영국 런던 마임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꼽힌다.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씨김난장 '야! 수라장', 일탈과 금기에 주목한 발광난장 '미친 금요일', 몸의 해방난장인 '도깨비 난장'을 통해 속박된 몸의 자유의지를 표현한다. 올해 축제는 옛 미군기지 터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다.



말레이시아, 코타바루 | 5월 28일~6월 1일
켈란탄 국제 연날리기 대회
장소 톱파트 게팅 해변

연 날리기는 말레이시아 반도 동해안에서 유명한 행사로 이곳 사람들은 커다란 초생달 모양의 연인 '와우 불란(Wau bulan)'을 만들어 날리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와우 불란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자부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모양으로 말레이시아 항공 로고에도 쓰인다. 해마다 5월이면 전 세계의 연 애호가들이 톱파트 지역으로 몰려들어 연날리기 대회를 벌인다.



한국, 남해 | 5월 30일~6월 2일
보물섬 마늘 축제
장소 보물섬 마늘나라 일원

마늘의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오감만족의 축제가 있다. 매년 5월 남해군이 동면 보물섬 마늘나라에서 열리는 보물섬 마늘축제가 그 주인공! 명품 남해 마늘의 우수성과 친환경 남해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창작마당극을 비롯해 마늘아춤 선발대회, 전국실버체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추첸 Chu Chen
타이완 가오슝시 시장

도시의 미학 가오슝

가오슝은 타이완 여행의 숨은 진주다. 내륙에 위치한 타이베이와는 달리 항구 도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 해양 액티비티와 신선 하면서 저렴한 해산물, 백사장이 딸린 비치 리조트 등 도시와 휴양지의 특성을 모두 갖춰 휴가지로 선택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추첸 시장에게 가오슝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향후 비전에 대해 물었다.



TPO 회원 도시 관계자들에게 타이완 가오슝 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타이완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은 타이완 남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가오슝으로 향하는 하늘 길을 창문 밖을 내려다보면 차이산(柴山), 반핑산(半屏山)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진 리엔즈탄 풍경구(蓮池潭風景區)와 아이허(愛河)를 볼 수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해수욕장, 해안공원, 등대와 요새 외에도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치진풍경구(旗津風景區)는 여행자들의 단골 코스죠. 동북아 지역 허브 항만으로 성장한 가오슝항은 1998년 개항 이래 가오슝을 무역과 상공업의 도시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낭만의 문화 현장을 만끽할 수 있는 가오슝에서는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최근 가오슝시는 '가오슝, 당신의 첫 타이완 여행지(Kaohsiung-Your first stop in Taiwan)'라는 새 슬로건을 내걸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슬로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오슝, 당신의 첫 타이완 여행지'는 말 그대로 타이완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할 곳으로 가오슝을 택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슬로건이지요. 그것이 관광 여행자든 비즈니스 여행자든 말이에요. 가오슝 국제공항과 가오슝 항

구를 통해 가오슝에 첫발을 디디는 순간 혹은 가오슝을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만족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오슝시를 찾는 여행자에게 시장님이 추천하고 싶은 어트랙션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래된 인공호수 리엔즈탄(蓮池潭) 인근에 자리한 공자의 묘나 두 개의 중국식 석탑인 룡후탑(龍虎塔), 전쟁의 신에게 헌납한 궁전식

누각 춘추각(春秋閣) 등을 둘러보면 가오슝만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길게 뻗은 아이허 강변에서 향기 좋은 커피를 훌쩍거리거나 강을 오가는 작은 유람선에 직접 몸을 싣는 것도 추천합니다.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리우허(六合) 야시장은 가오슝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지요. 치진 풍경구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렌트해 섬 일주를 해보는 것도, 컨템포러리 아트 작품을 소개하는 피어-2 아트센터(Pier-2 Art Center)와 환상적인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시즈완 베이(西子灣, Sizihwan Bay)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이 아플 만큼 돌아다녔다면 발 마사지의 시초가 된 가오슝의 원조 발마사지가 선보이는 탁월한 효능도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여행 정보 사이트 '부츠나올(BootsnAll)'에서 선정한 세계 15개 아름다운 지하철역에 선정된 메이리다오(美麗島, Formosa Boulevard), 중앙공원(中央公園, Central Park) 역은 이동 중에 반드시 들러 보세요. 일본 건축가인 신 다카마쓰(Shin Takamatsu)가 디자인한 대규모 천장화와 작은 개울과 꽃이 만발한 외벽이 여행 중 이동 시간을 즐겁게 해줄 테니까요. 맛도 좋고 기억에 남을 선물도 고민된다면 타이완 스타일 디저트를 판매하는 우파오춘 베이커리(鳴寶春麥方店, Wu Pao Chun Bakery), 타카오 케이크(打狗餅, Kaohsiung Takao Cake)숍이 좋습니다.

2013년 가오슝시는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Asia Pacific Cities Summit) 개최를 비롯해 여러 스페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2013년은 가오슝에 중요한 해입니다. 오는 9월 9~11일 진행될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를 비롯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와인경진대회 '콩쿠르 몽디알 드 브뤼셀(Concours Mondial de Bruxelles)'도 6월 6~9일 열립니다.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가오슝이 처음으로 전 세계 50여명의 스타 소솔리에가 가오슝을 찾지요. 매년 봄이 되면 2013 가오슝 인터내셔널 마라톤(2013 Kaohsiung International Marathon)과 5개국 70개 공연팀의 음악과아트,컬처를 경험할 있는 가오슝스프링아트페스티벌(Kaohsiung Spring Art Festival)이 진행됩니다.

이 중 가장 기대되는 행사는 아무래도 '아·태 도시 정상회의'가 아닐는지요

'2013 아·태도시정상회의(2013 APCS, 2013 Asia Pacific Cities Summit, www.2013apcs.org)'가 9월 9일 가오슝 아레나(Kaohsiung Aren)에서 개막식을 열고 사흘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갑니다. '도시경제학의 재편-도시의 도전과 해결 방안(Reshaping the Urbanomics of Cities-City Challenges, City Solutions)'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00여 개국 도시의 시장, 부시장 등 대표자 1000여 명이 참석합니다. 2년마다 열리는 APCS는 국제 비즈니스 및 도시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포럼으로 올해는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친환경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비전은 물론 아태도시정상회의의 참가 도시 간 상호협력과 우호증진을 선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오슝의 또 다른 비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을 단순한 구조물이나 주거공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예술품, 조각, 회화, 아름다운 종합디자인 선물세트라 생각해보십시오. 뉴 베이(New Bay) 지역에 건설되는 가오슝

전시장과 컨벤션 센터(Kaohsiung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가오슝 해양 컬처&뮤직 센터(Kaohsiung Maritime Culture and Popular Music Center), 가오슝 항만터미널(Kaohsiung Port Terminal), 가오슝 공공도서관(Kaohsiung Public Library) 등이 이 원리를 바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오슝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이 또한 풍부한 문화 감성과 항구 도시로서의 활력을 가오슝에 가져다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